

2026년 6월 4일(목)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지영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490장
기도	신상헌 안수집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5장 1-3절
찬양	잘 싸우라
설교 ..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 ..	이지영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545장
축도	설교자

1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3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에 보기에어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5장 1-3절 >

-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기도 담당

6/2(화)	6/3(수)	6/4(목)	6/5(금)	6/6(토)	6/8(월)
최형욱 안수집사	김충경 안수집사	신상헌 안수집사	김민수 안수집사	전해용 안수집사	조왕영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6월 4일(목)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귀중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매순간 주님 생명의 자리로, 언약의 길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거룩한 성소로 나아온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둡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세상을 향한 욕망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문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은 분명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새문안교회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사랑, 풍성히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담임목사님과 새문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영적 사명과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 가운데 맡겨진 소명,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 평화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수많은 영혼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남과 북에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